

장성군 공약사업 순조...군민행복시대 앞당긴다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

이행률 26.7% ... 신속추진 박차

2551억원 상반기 집행 계획

장성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김명신 장성부군수 주재로 '공약사업 및 신속집행 보고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민선8기 장성군의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5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개발 11건 ▲교육 6건 ▲복지 9건 ▲문화·관광·체육 9건 ▲산업경제 8건 ▲농업 7건 ▲일반행정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6건으로 2월 현재 26.7%의 공약을 이행했다.

먼저 지난해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20만원 지급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추경예산안 134억원이 가결되



장성군이 지난 15일 김명신 장성부군수 주재로 '공약사업 및 신속집행 보고회'를 가졌다.

면서 총예산 6016억원을 확정지었다.

군은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목표로 국비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읍면 생활민원예산도 중전 10억원에서 2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 민원 처리 시간이 감축됐다.

중앙부처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세종사무

소도 설치, 각종 국고사업 관련 정보 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한다.

군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효도권 증액(연 30만원) ▲청소년수당 지급(연 7만~10만원) ▲대학생 무상교육 ▲8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장애비 지원 등이 관련조례 제·개정을 마치고 하반기 시행된다.

부지 매입이 필요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산디특화공원 조성 ▲야생동물원 건립 등은 위치 선정과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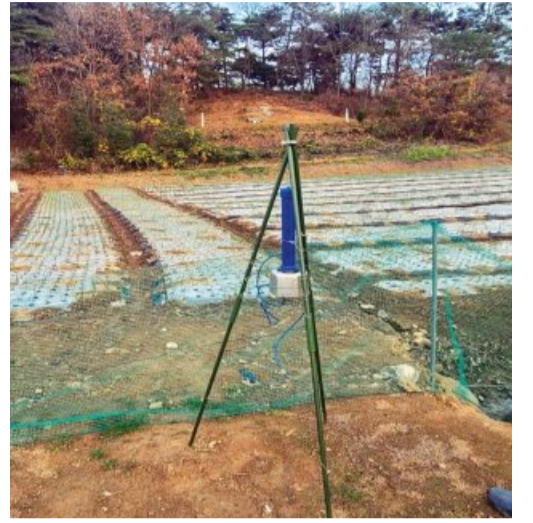
보고회에서는 신속집행 817건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군은 행정안전부 목표인 2438억원보다 많은 2551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신속집행 적극활용지침에 입각해 각종 물품 선구매, 선금·기성금 지급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예산 6천억 달성 등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3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야생동물 퇴치기.

함평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목책기, 경음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설치지역이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단 농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자부담 40%) 피해 발생 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 순위를 반영해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 고향사랑기부 두 달 만에 1000명 돌파

담례품 한과·떡갈비·한우 인기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기부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달 여 만에 거둔 성과다.

담양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 사례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담례품은 3만원 상당의 한과(약과)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떡갈비와 한우가 뒤를 이었다.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다. 담양 송일식당의 자제들과 서재준 법무사가 고향인 담양에 기부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퇴직 공무원인

송정원 전 건설과장, 임흥준 전 산림정원과의장 기부도 제도 취지에 맞는 기부로 꼽혔다.

또 조계종 관음사 주지 허은 스님이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담양군은 현재 쌀, 한우, 떡갈비와 같은 먹거리와 더불어 담양을 즐길 수 있는 관광·문화상품, 상품권 등 14종의 담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지역 농특산물,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과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며 "보내주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목공예협회 회원들이 공동 작업실에서 목공예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목공예협회 목공예산업 활성화 전인

회원 50여명 전시회 등 활동 활발

편백숲 우드랜드와 천관산, 제암산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장흥군이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장흥군이 후원하는 장흥목공예협회에는 이달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주제별로 짜맞춤, 목선반, 우드버닝, 우드카빙, 스크로소우, 나무 조각 등 6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은 한 달에 2~4회 훈련을 하며 실력을 갈고닦고 있다.

이곳에서는 기술을 전수하고 연구를 함께하며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고 있다.

또 전시회에 출품해 장흥에서 생산한 다양한 목공예 제품을 홍보·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남도가 주관하는 목공예콘테스트에도 작품을 내놓는다.

정기 전시회 등을 통해 목공예 작품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장흥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는 계획이다.

협회에서 활동하는 목공예기능인들은 공동 작업실을 마련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우드랜드 임울대 광장에서 지역 수공예품 작가들과 '말레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성용 장흥목공예협회장은 "분야별 활동 성과는 전시회와 경연대회, 말레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회 활동을 내실화하고 작업에 동기를 부여해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올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와 장흥목공예협회의 협력, 상생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과 목공예 기량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 전수 및 장비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노인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평가 A등급 선정

타 시설과 사무실 공유 등 호평

함평군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전국 노인복지관 시설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에 선정됐다.

함평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노인복지관 39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성,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함평군노인복지관은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사무

실 공유를 통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행복복지관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복지관 회원 안부살핌 전화 ▲코로나19 방역키트 전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윤하 함평군 노인복지관장은 "이번 성과는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나주시 참가자 선착순 모집

나주시가 오는 24일까지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 달 20일부터 4월10일까지 매주 월요일·화요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교육장에서 열린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등 모두 7차례 과정으로 진행된다. '밥 맛있게 짓기'와 누룽지, 쌀가루, 떡, 쌀국수 등 우리 쌀을 활용한 단계급식 조리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학교와 공공기관, 유치원 등 급식시설 영양사와 조리사, 시민 등이다.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성을 올바르게 알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출석률 70% 이상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맛과 영양을 갖춘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쌀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가 혁신도시 유흥지에 조성한 도심 속 공영텃밭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 공영텃밭 확대 340구획 분양...내달 10일까지 분양 신청

고물가와 건강을 위해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도시농부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시가 공영텃밭을 대규모로 임대 분양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빛가람동 텃밭 3개 단지와 올해 새롭게 조성한 봉황옥산텃밭 1개 단지 등 공영텃밭 총 340구획을 내달 10일까지 시민에게 1년간 임대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영텃밭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공원과 유흥부지에 지난 2015년부터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에 3평 남짓한 아끼기만한 텃밭은 원하는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의 결실을 맛

볼 수 있어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텃밭 분양 구획은 '빛가람공원 제1텃밭'(빛가람동 536번지) 190구획, '제2텃밭'(빛가람동 831번지) 30구획, '제3텃밭'(빛가람동 22-1번지) 60구획, '봉황옥산텃밭'(봉황면 유곡리 980-3) 60구획이다.

1구획 당 면적은 9.9㎡(약 3평) 내외로 가구당 1구획을 1년 간 분양하며, 빛가람공원텃밭은 5만원, 봉황옥산텃밭은 4만원에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나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내달 10일까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또는 QR코드 인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텃밭 배정은 온라인 추첨으로 진행되며 3대가 족이 참여하는 신청자는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

나주시는 텃밭운영단체인 네이클로버영농조합법인과 오는 4월 1일 개장식을 갖고 모종 나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텃밭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구를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교육과 공동체 행사도 연중 지원한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영텃밭이 농업을 이해하고 가족, 주민들간 소통과 치유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수확의 기쁨과 건전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영텃밭 분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성군, 논 작목 전환

ha당 250만원까지 지원

장성군이 논 작목 전환 지원 등 쌀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쌀 생산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지난해 벼농사를 지었던 논에 콩류, 옥수수, 참깨, 고구마 등 일반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ha) 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과 하계 조식료 등을 벼 대신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계절과 품목에 따라 다르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휴경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ha당 최대 300포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